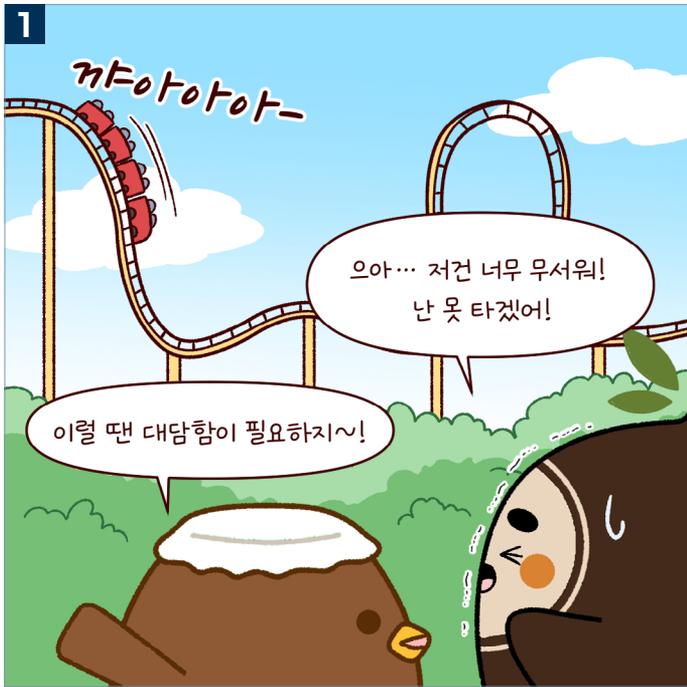


# 한방울과 황단이의 한의약 속 우리말 6. 대담하다



## '대담하다' 란?

'대담(大膽)하다'는 용감하다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. 한의학에서는 "담주결단(膽主決斷)"이라 하여, 담이 사람의 결단력과 용기를 주관한다고 봅니다. 담이 약해졌을 땐 온담탕(溫膽湯) 같은 처방약이나, 오미자차처럼 간·폐의 기운을 돕는 차로 담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.